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4장 세상의 소금

『산상설교』 상권 제14장, 인쇄 188~19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3

> ❓ **세상이 이렇게 썩어 가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가 여기서 새 단락으로 넘어간다는 데서 출발한다. 팔복(마태복음 5:3~12)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렸다면, 5:13부터는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룬다. 그는 먼저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이 썩어 가는 고기 같다는 진단을 깔고 있다고 짚는다. 이 진단으로 19세기식 낙관주의를 반박한다. 이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소금의 일차 기능은 부패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다룬다. 교회가 정치 선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스며드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부흥의 역사와 지난 50년의 실패로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맛을 잃은 소금,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고 결론짓고 자기 점검을 촉구한다.

📜 절별 정리

📜 1. 성격에서 기능으로 —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로이드 존스는 5:13이 산상설교의 새 대목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5:3~12의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묘사했다면, 이제 주님은 그 내용을 적용하신다. 곧 “우리가

않지만 세상 안에 있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정신과 전망은 내세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물러나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 떨어져 명상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친 수도원제도를 과오로 규정한다. 베드로전서 2:9도 같은 뜻이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다.

1. 팔복은 성격, 5:13부터는 그 성격의 적용이다
2.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3. 내세적 전망이 세상 이탈을 뜻하지 않는다
4. 수도원제도는 성경이 부정하는 과오다
5. 팔복의 사람이 되는 목적은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3

팔복 단락(5:3~12)의 시작으로, 앞서 다룬 '성격'의 범위를 보여 준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13

성격 묘사에서 세상 속 기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베드로전서 2:9

택함 받은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부름 받았다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16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안에 있다”는 표현의 배경 구절이다

>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 2. "세상의 소금" — 세상은 썩어 가는 고기다

로이드 존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말한다고 본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것을 19세기 말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낙관주의와 대조한다. 그들은 생물학적·철학적 진화론에 기대어 인류가 계속 진보한다고 믿었다. 전쟁은 없어지고 질병은 치료되며,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음주와 음란을 그만두고 법률과 국제회의로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진지하게 기대했다. 그는 자신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본다. 제1차 대전 뒤에도 자유주의 낙관론이 퍼져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괴짜나 비관론자, 구식 신학자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상가들도 그 오류를 인정하고, 진보는 필연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다르게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온 뒤 부패는 곧 드러났다. 창세기 6장의 홍수에 이르렀고, 새 출발 뒤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성경의 이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는 세상에 대한 어떤 낙관론도 비성경적이며, 역사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결론 내린다.

1.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세상이 썩는다는 진단이다
2. 19세기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역사로 반박되었다
3. 죄가 들어온 뒤 부패는 끈덕지게 드러난다
4. 홍수 뒤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다
5. 세상 낙관론은 비성경적이며 역사로도 거짓이다

> **마태복음 5:13**
> '소금'이라는 비유 자체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한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죄가 들어온 뒤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타락이 심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5

홍수 직전 사람의 악이 가득했다는 진단으로, 부패의 실례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9:24

새 출발 뒤에도 부패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 3. "너희만이" —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본문의 “너희”에 강조가 있어서 “너희만이 소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팔복을 공부하며 떠오른 결론도 같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소금은 자기가 닿는 매체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소금의 구실을 한다. 큰 덩어리 속의 적은 양이라도 짠맛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조차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뿐 아니라 그 다름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세상과 분명히 다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를 구별해 알아보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는 각자 자신을 검토해 보라고 권한다.

1. “너희”의 강조는 '너희만'이라는 뜻이다
2. 소금은 매체와 다르기에 소금 구실을 한다

5.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알아보여야 한다

마태복음 5:13

"너희는"의 강조와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이 다름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3

팔복이 그리는 성격 자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베드로전서 2:9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다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은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 4. 소금의 기능 — 먼저 부패 방지, 다음은 맛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이 더 어렵고 자주 논쟁이 된다고 인정한다. 어떤 이들은 소금이 건강에 좋고 생명을 지켜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오해로 본다. 소금의 주된 기능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구실이다. 그는 고기 한 조각을 예로 든다. 고기 표면에는 짐승이나 공기에서 온 균이 붙어 있어 썩을 위험이 있고, 그 안에 비벼 넣은 소금이 썩기 쉬운 고기를 보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는 첫째 기능은 겉보기에 '부정적'이다. 악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기독교 없는 세상의 삶은 무미건조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이런저런 쾌락을 찾아 뛰어다니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삶의 맛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쾌락이 필요 없다.

1. 소금의 일차 기능은 건강이 아니라 부패 방지다
2. 고기 속 균을 막듯 세상의 악을 막는다
3. 그리스도인의 첫 기능은 '부정적'인 억제다
4. 이차 기능은 삶에 맛을 내는 것이다
5. 쾌락을 쫓는 세상은 신앙 없는 삶의 밋밋함을 보여 준다

> **마태복음 5:13**
> 소금 비유에서 방부와 맛이라는 두 기능을 끌어낸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창세기 6:5**
> 그대로 두면 썩는 세상이라는 앞의 진단이 방부 기능이 필요한 이유다
>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소금의 기능은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5. 어떻게 소금이 되는가 — 교회의 선언이 아니라 개인의 삶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을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교회가 정치·경제 상황과 국제 문제에

선지자들도 나라 전체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그의 답은 이렇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였고 교회와 국가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나라 전체의 삶을 향해 말해야 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국가나 민족과도 같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가 로마 정부를 비평하거나 결의안을 보낸 일은 신약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서 소금 구실을 한다. 생활과 성격과 품행으로 가정, 일터, 사무실, 어디서든 드러나는 악을 억제한다.

그는 반대쪽 극단도 경계한다. 그리스도인은 투표도 하지 말고 사회 문제에 상관하지 말라는 주장도 오류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예로 근로법 제정에 힘쓴 섀프츠베리 백작과 노예제 폐지에 힘쓴 윌리엄 윌버포스를 든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간접적인 소금 구실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과는 다르다.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교회의 기본 임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이라고 답한다. 교회가 늘 공산주의를 비난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복음에 귀를 닫는다. 사회의 한쪽을 늘 비판하는 교회는 그쪽에 전도의 문을 닫는다. 공산주의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교회가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 임무를 해친다. 교회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 가입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교회의 관심은 죄다. 그리고 죄는 공산주의자에게도 자본가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모든 계급과 집단에서 드러난다.

1. 교회와 개인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야 한다
2.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기에 선지자가 나라에 말했다
3. 신약 사도들은 로마 정부에 결의안을 보내지 않았다
4. 투표 거부도 오류다 — 개인은 시민으로 참여한다
5. 교회의 기본 임무는 모든 계층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마태복음 5:13**
> “너희”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 역할을 한다는 근거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베드로전서 2:9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곧 복음 전파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기본임무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 6. 역사의 증거 — 부흥이 사회를 바꾸었고, 선언은 실패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칙을 역사로 뒷받침한다. 교회에 큰 각성과 개혁이 있을 때마다 사회 전체가 그 열매를 거두었다. 리처드 백스터가 사역한 키더민스터의 부흥에서는 교인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었다. 교회 밖의 많은 사람이 회심했고, 그 지역 전체의 악과 비행이 억제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비행을 꾸짖거나 정부에 법률 통과를 압박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도, 20세기 초 1904~05년 부흥에서도 같았다(번역본의 '19세기 초'는 문맥상 20세기 초의 오기로 보인다). 구약의 개혁과 부흥,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청교도가 통과시킨 법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양태를 말한다고 덧붙인다. 또 유능한 역사가 대다수가 18세기 말 프랑스 같은 혁명에서 영국을 구한 것은 부흥운동뿐이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더 높은 전망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19세기의 큰 법률들도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결과라는 것이다. 반대 증거도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교회는 그 이전 수백 년을 합친 것보다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더 신경을 썼고, 총회들이 정부에 선언문과 결의안을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50년 전보다 더 음란하고 무법한 사회였다. 성경의 방법을 따르지

1. 부흥 때마다 사회 전체가 열매를 거두었다
2. 백스터의 키더민스터는 개인 영향력의 실례다
3. 법률이 아니라 회심한 개인들이 사회를 바꿨다
4. 부흥이 영국을 프랑스식 혁명에서 구했다
5. 지난 50년 교회의 정치 선언은 사회를 못 막았다

> **마태복음 5:13**
> 소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스며듦'으로 보존한다는 원리의 근거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고린도후서 5:16**
> 계층을 가리지 않는 복음 전파가 사회 변화의 통로라는 앞 논증을 잇는다
>
>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 7. 맛을 잃은 소금 —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

로이드 존스는 진짜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고,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짜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공격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말씨와 화제가 우리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약간의 참된 성도만이 어디서든 스며드는 영향력을 낸다. 교회는 전쟁과 정치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지만 일반 시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성령으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는 이것을 “세포 침투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적은 소금이 본질상 큰 덩어리 속으로 스며들어 전체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그는 당시 사회의 부패를 열거한다. 이혼과 별거의 급증, 생명의 신성함을 비웃는 농담, 늘어가는 음주와 도둑질이다. 사람이 만든 법이나 신문은 이것을 다루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뿐이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안의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해 달라는 기도로 설교를 맺는다.

1.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적고 맛을 잃은 데 있다
2. 소금이 되라는 것은 공격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3. 내가 들어가도 방 안의 대화가 그대로인가
4. 적은 소금이 스며드는 '세포 침투'의 원칙이다
5. 감리교 부흥 이전 런던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 **마태복음 5:13**
>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말이 오늘 교회에 대한 경고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디모데후서 1:6**
> 마지막 기도의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심'의 배경이다
>
>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 **고린도후서 5:17**
>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만이 소금 구실을 한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오해와 반론** ⌄

📖 **용어** ⌃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그린다.

수도원제도
참된 신앙을 위해 사회를 떠나 따로 모여 명상과 수행으로 사는 제도다.

자유주의 낙관론
인간은 본래 선하고 역사는 진보하므로 교육과 제도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진화론(철학적 의미)
생물만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사회도 저절로 점점 나아진다는 사고방식이다.

방부제 기능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의 일차 역할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일을 가리킨다.

부흥
하나님이 교회에 큰 영적 각성을 주셔서 신자가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다.

청교도
16~17세기 영국에서 성경대로 교회와 삶을 개혁하려 한 개신교 신자들이다.

세포 침투의 원칙
적은 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로이드 존스의 표현이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5:13은 팔복으로 그린 성격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이 죄로 썩어 간다는 진단을 전제하며, 세상에 대한 낙관론은 비성경적이다.
-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다름으로 악의 부패를 막는다.
- 교회의 임무는 정치 선언이 아니라 복음 전파이고, 사회를 보존하는 길은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스며드는 것이다.
- 오늘의 문제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러니 각자 자신이 참된 소금인지 점검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